

ㄱ 에 12/27/20

설교 제목: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시편 37 편 1-40 절

- (시 37: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절관주** 잠 24:19
- (시 37: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 (시 37: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 (시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시 37: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시 37: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절관주** 미 7:9
- (시 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 (시 37: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 (시 37: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 (시 37: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절관주** 욥 7:10
- (시 37: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 (시 37:12)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 (시 37:13)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 (시 37:14)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절관주** 시 11:2
- (시 37:15)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절관주** 시 46:9
- (시 37: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 (시 37:17)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 (시 37:18)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 (시 37:19)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 (시 37:20)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와 의인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 (시 37:21) 악인은 꾸고 꺾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 (시 37:22)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 (시 37: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 (시 37: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절관주** 미 7:8, 고후 4:9
- (시 37:25)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 (시 37:26)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 (시 37: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 (시 37:28)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 (시 37: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절관주** 시 37:18
- (시 37:30)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 (시 37:31)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 (시 37:32)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 (시 37:33)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 (시 37:34)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 (시 37:35)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절관주** 욥 8:16
- (시 37:36)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 (시 37:37)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 (시 37:38)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 (시 37:39)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시 37:40)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2020 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2020 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윗이 쓴 본 시를 메세지로 주십니다.
본 시는 세상에 살면서 영광의 날과 오욕의 날을 다 겪은 다윗이 노년에 접어들어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며 쓴 신앙 고백인 동시에 악이 창궐하는 혼탁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곤경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신앙관과 가치관에 혼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토대로 전해 주는 위로와 권면의 메세지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말세 중 지말인 지금은 악이 더욱 기승을 부려 세상은 혼탁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인 양 포장되어 진실 행세를 하면서 득세를 하고 진실이 거꾸로 거짓으로 몰려 왕따를
당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을 이루며 의인이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신앙적인 가르침과는 사뭇 달라 사람들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본 시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며 또 당장 눈에 보여지는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할 신앙적 가치관을 확고하게 정립해 줍니다.

다윗은 시에서 사람들을 향해 여덟 가지의 권면과 함께 자신의 체험을 들려 줍니다.

다윗은 첫 번째 권면으로 서두를 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 37: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 37: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쇠잔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시 37: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시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시 37: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 37: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온 세상에 밝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시 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끝까지 지켜 보지도 않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 37: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 37: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 37: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 37: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분과 노와 불평은 악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질 것이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시 37: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시 37:28)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시 37: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의인은 가나안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시 37:34)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 37:35)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시 37:36)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상속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변성했던 악인들은 모두 사라져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악인은 당장 형통하여 번성할지라도 속히 멸망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다윗은 여덟 가지의 권면과 함께 자신의 경험 곧 자신이 살면서 지켜본 의인과 악인의 종국을 언급합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사는 동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결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의인이 계속 은혜를 베풀더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고 말합니다.

(시 37:25)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 37:26)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반면 세도가 당당하고 기세 등등했던 악인들은 속히 멸망하여 사라지더라고 말합니다.

(시 37:35)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시 37:36)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고 신앙관과 가치관에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남겨 주고 싶은 교훈을 말합니다.

(시 37:37)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 37:38)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시 37:39)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시 37:40)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화평한 자 곧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구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의 구원 즉 세상 살면서 겪는 병으로부터의 구원, 기근으로부터의 구원, 핍박으로부터의 구원 등등을 다 포함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는 까닭은 그가 당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납니다.

종국에 최후 승리자가 될 자 곧 평안을 거머지고 땅을 차지하며 영원히 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일시적으로 환란에 처해질 수는 있겠지만 종국에는 최후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은 당장은 형통하고 번성할지라도 속히 멸망하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당장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하여 질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환란을 당할지라도 의인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에 승리를 거머쥐는 자가 최종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간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2020 년을 보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동안 흔들렸던 신앙관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안겨 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2020 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을 듣고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